

아름다운 이야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인류와
온 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의료진을 위해
우리모두
기도로 응원합시다.

73_{rd}

“디아코니아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춘천동부교회”

디아코니아(diakonia)는 그리스어로 식탁에서 시종드는 것으로 영혼구원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주님(막10:45)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 섬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춘천동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디아코니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이야기 기고를 받습니다”

아름다운이야기에서는 동부교회내뿐 아니라 외부의 좋은 글도 받아 게재 합니다.

시, 수필, 공트, 신앙 간증, 평론, 정보소개 등 종류와 상관없으며 내용은 반드시 기독교(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것도 무방합니다. 단, 반기독교적이거나 특정 의도의 글 또는 상업적인 목적의 글은 게재되지 않습니다. 연중 언제든지 글을 접수하며 선정된 글에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동부교회 교우 여러분과 일반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이인호 010-6270-1744 / lihbingo@hanmail.net 아름다운이야기 편집부

사진 : 강릉 사천향의 일출

2020년 통권 73호

창간 2001년 5월 6일

발행일 2020년 5월 3일

발행처 춘천동부교회

발행인 김한호

담당교역자 박도준

편집위원장 박경해

부위원장 이인호

사진 전경해

편집위원 임양숙, 정현숙, 김지원, 이에림, 오주혜

(24353)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68-6

TEL 033)252-5959 FAX 033)241-1999

홈페이지 <http://chdongbu.or.kr>



춘천동부교회
Chuncheon Dongbu Presbyterian Church

DONGBU GALLERY



〈금병산자락 가을풍경〉



김미경

프로필(이력)

- 수채화 개인전 – 갤러리 오르 2020.3.1 ~30
- 제11회 대한민국 수채화 페스티벌. 동덕미술관
- 예드리 수채화 동인회원
- 수채화가 유명애 사사

THE ARUMDAUN AUTUMN 2020.05. VOL.73

가 볼만한 곳

20

제주도 2박 3일



쉬어가는 글

24

"이탈리아 무신론자 의사의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부의 눈	04
교구이야기	06
기고 [소박한 소망]	10
간증 [하나님 덕분에]	12
나는 이렇게 산다	14
신앙에세이	16
라떼파파 이야기	18
가 볼만한 곳	20
청춘예찬	22
쉬어가는 글	24
추천도서	26
포토에세이	27
동부소식	28





아셀의 축복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는 제우스의 아들인 카이로스(Kairos)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별거벗은 몸으로 우람한 근육질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대머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칼,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어깨와 발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조각상이 가진 모양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별거벗은 것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까닭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칼과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저울로 그 기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어깨와 발뒤꿈치에 날개가 달

린 것은 기회는 빠르게 사라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회는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오래 머물지 않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2019년을 되돌아보면 한 해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올 한해도 빠르게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저울질을 잘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잡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죽을 시간이 다가오자 홀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전부 죽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세대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아셀'에게 하는 축복을 보면, 아셀은 야곱의 여덟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셀은 첩의 자녀였기 때문에 늘 부끄러움과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셀에게 준 복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셀이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셀은 첩의 자식이었기에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나'라는 존재가 아셀처럼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의 밭이 기름에 잠긴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질의 복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포도주나 기름이 재산이었습니다. 그 밭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풍성한 경제의 복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네 문지방은 철과 놋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문지방이 나무라면, 쉽게 부서지겠지만, 철이나 놋으로 된 문지방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아셀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셨으니 아셀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요즘 축구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는 신체적인 외소함 등 여러 가지 외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년 은퇴할 나이인 63세에 한국 땅을 떠나 동남아시아인 베트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자신들이 체력이 약하고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 계속해서 실력이 향상 되더니 동남아시아경기대회(SEA)에서 우승을 하며 금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59년 이후 60년 만에 최정상이 된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우승으로 만들 수 있었던 기적의 비결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는 자신도 작은 체구의 설움을 가져보았기에 베트남 선수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해해주는 감독에게 선수들은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선수들이 실수를 하면 사랑으로 덮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를 위해서 아내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박 감독의 노력과 헌신에 선수들은 변화하여 최강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새해에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또한 아셀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글 김한호 위임목사





믿음의 동반자,
그리고
평생 기도의 후원자인 양가 부모님도 계시다는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희 가족 또한 감사하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 받은 축복받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지금은 아내와 딸. 저 3명이 살고 있지만 5월이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자녀 1명을 또 만나게 될 예정이기도 하지요^^

사실 춘천과의 인연은 사업적인 이유로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대학교와의 오랜 인연으로 10년 전 서울과 강원도 2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강원 시험소의 인원과 장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효율성 및 더 즐거운 회사생활을 위해 큰 결단으로 강원도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춘천에 거주지를 옮겨 춘천시민이 된지 5개월 정도 되었네요 ^^;;

지난 한해 동안도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테지만...)

한없이 부족하고 완악한 제 곁에 사랑스러운 딸과 현숙한 아내가 늘 함께 해주었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 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와 부모님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노력과 기도보다도 더 세밀한 곳까지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예측하며 측량하며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희 가족은 늘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감사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동부교회를 알게 하시고 매주마다 은혜와 감동의 말씀들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목사님, 가족구역모임을 통한 친근한 소통과 화목한 분위기의 예배와 각 가정을 향한 중보기도, 시온 찬양대로 아내와 함께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춘천에 지내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부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미약하나마 작은 도움이 될수 있는 주춧돌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2020년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합니다.

저희 가정 안에 더욱더 거룩한 습관이 학습되고 습득되도록 훈련되어지기를....

저희 가족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충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가정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고, 경청과 공감, 그리고 감동을 주는 부모와 부부, 자녀가 되길 소망하고, 이웃에게는 나눔과 베품의 넉넉한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

글 1교구 김형진 집사, 고명선 집사

부끄럼 없는 삶

우리 주변에는 역사 속 위인들의 동상이나 기념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상이든 기념비이든 공통점은 후세들의 마음 속에 길이 간직하게 하고 본이 되고자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무엇인가 흔적을 남긴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간직되어 감격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당사자로서는 신념대로 산 근거요, 할 일을 다 한 인간답게 산 증표라 믿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후회없이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일이고, 더욱 자기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일반 동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높은 지성 즉, 이성의 소유자이며 고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경제적 여유가 있고 남의 구속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활 태도가 현저하게 비이성적이라든가, 힘으로 남을 괴롭힌다든가,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자라면 우리는 이들을 인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평생을 통해 세 가지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투쟁이요.

둘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투쟁이요.

셋째는, 인간 스스로 마음과의 투쟁입니다. 이중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선과 악의 마음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분명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이고 늘 스스로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 한다면 어찌 피 땀 흘려 열심히 공부한들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성원 모두는 너, 나 할 것 없이 규율과 질서를 잘 지키며 열심히 배우고 서로 격려하여 자기 이외의 사람을 친구, 선배, 후배라는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실천할 때 사회질서는 물론 자신의 본분에서 이탈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도, 남을 무시하는 오만도, 남을 시기하는 질투도, 남을 깎아 내리는 교만도 없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습관이 생활 속에 스며들 때 부끄럼 없는 인간다운 삶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도, 남을 무시하는 오만도, 남을 시기하는 질투도, 남을 깎아 내리는 교만도 없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습관이 생활 속에 스며들 때 부끄럼 없는 인간다운 삶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글 2교구 김영득 집사





영혼 구원의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3교구 7구역에 있는 김문희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이 글을 쓸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교신자였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옮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으로 울산에서 가평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우리 가정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님마저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불교를 믿었던 우리 집안과 기독교 집안인 시댁 사이에서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동서로부터 남편과 시누이들과 작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종교 문제가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마음을 바꾸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겠다는

마음에 남편과 의논 후 교회에 나가기로 굳은 결심을 하고 춘천동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동부교회에 온 첫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날 바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디아코니아 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아 1단계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복지와 디아코니아의 다른 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았던 오래된 영화 ‘장발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5년 징역을 받고, 탈옥해 19년 동안 징역을 살았습니다. 출소 후 주교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으나 은수저를 훔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발장에게 주교는 은촛대를 주며 "이것은 왜 가져가지 않았소!"라고 말하며 장발장을 구해주었습니다. 장발장이 주교에게 "죄인인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라고 묻자 "나는 이 은촛대 대신에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한다는 것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 그 답을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장발장이 빵 한 조각으로 인생을 망치게 한 사회적인 제도와 억울함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디아코니아 과정을 배우면서 전문성과 고백성에 대한 내용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40일 새벽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부끄러운 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날마다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미숙하여 제 삶을 제가 계획을 하려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 부부를 새벽기도로 이끄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가평에 이사를 오면서 외로웠던 저희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잠이 많은 저를 항상 깨워

주고 새벽예배를 위해 가평에서 교회까지 먼 길 운전을 하며 늘 따뜻하게 함께 해준 남편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글 3교구 김문희 집사



새로운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지난 해 8월에 춘천동부교회의 가족이 된 김미자, 최종만 부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학교와 교회만 알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성인이 되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교회를 나가는 것을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함께 교회를 가진 않았지만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굿을 했는데 "집안에 예수쟁이가 들어와서 조상들이 난리가 났다! 너는 남편 잡아먹지 않으려면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제가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남편이 교회에 나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나! 이러한 무당의 엄포에 최 집사는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자손을 잡아먹을 리가 없다. 무당은 믿을게 못된다."라고 말하며,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저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의 감격을 추억해보

면 지금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남편은 여러 은사와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께 받은 믿음의 확신도 감사한데, 안수 집사라는 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보며 '나 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에도 여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자녀인 큰 딸 최은영, 둘째 아들 최대용, 셋째 최도용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비록 남편 사업의 부도로 경제적 환경은 최악에도 머물렀지만, 세 자녀 모두가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남부럽지 않게 자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 받은 수술 후 찾아온 후유증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찾아온 지역이 바로 남편의 고향이기도 한 춘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춘천 여러 교회를 방황하다가 담임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등록한 교회가 바로 춘천동부교회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피가 나서 "등록하지 않고 편하게 교회다니자"라는 영적 게으름에 등록을 물리려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다시금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등록을 마치고 나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남편과 더불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불모지인 고성1리 도장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짐한 바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활에서 증거하며, 기도하고 기회 닿을 때마다 전도하려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둘째 아들이 본인의 적성을 따라 회계사 시험을 보겠으며 사표를 내기도 하고, 손주들의 군생활과 믿음 생활, 그리고 취업문제 등의 여러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았지만 모두가 주의 은혜이자 섭리였음을 고백하기에, 이 또한 주님 안에서 순항할 것을 믿습니다. 2020년 춘천동부교회 식구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글 5교구 김미자 권사, 최종만 집사

소박한 소망(素望)

세월여류(如流)는 덧없이 흐르는 날을 말한다. 시골장로가 장로취임 1년 후 강원도 수부도시 봄내골에 '나그네' 붓집을 풀고 살아온 날이 49년이다. 강원도에서 기독교를 최초로 전래받은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장로 직무 35년, 원로장로 15년, 반세기의 회고는 많은 추억과 역사를 반추하게 된다.

삼척제일교회에서 서른일곱 살에 장로가 되어 무겁게 기도하며 강원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겨 산하기관을 돌며 공직을 수행하다 1996년에 33년의 공직을 정년했다.

초기에는 '덧새'가 심해 시련도 많았으나 직위가 상승하면서 난관을 이겨 낼 수 있음을 체험하였다. 이동 첫

날부터 나는 장로이니 사석에서는 '장로'라고 불러 달라며 신앙을 지켰고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는 음모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마지막 관직은 공직을 시작한 삼척도서관에서 창설 '제1대 서기관' 관장으로 퇴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한량없이 크심을 알았다.


장로정년은 72세임으로 직장정년 후 십년을 아무지게 살았다. 선교, 문학을 비롯한 사회활동과 사업경영, 선진지 견학, 인문학연구 등은 큰 도움을 주었다. 86세 노인에게 노후를 살아가는 산지식과 용기를 주었고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의욕을 북돋우어 준다. 춘천에 자리 잡으며 '주직야선(晝職夜宣) 낮에는 직장일, 밤에

는 선교전도)'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 이로써 하나님이 열매를 따게 하셨다.

춘천에 온 이듬해, 1973년3월18일 나는 최초로 '기독교 춘천 장로연합회'를 창립했다. 그 무렵 자립한 교회는 춘천중앙감리, 동부장로, 제일장로, 성광장로, 중앙성결교회 등이다. 춘천시내 38교회 장로 52명을 조사하여 조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루어낸 쾌거다. 교단 순서로 인하여 나는 현재까지도 회장을 하지 못했으나 창립자의 기쁨을 흐뭇하게 느끼며 살고 있다. 그 일 이후 나에게는 '창립, 창설의 달란트'가 몸에 배었다.

- *오대산 청소년수련장 창설
- *6.25순직교직원발굴 동상 건립
- *강원도교육위원회 창립
- *춘천중앙교회 소식지 창간 5년 반 운영
- *강원노인복지회 창립
- *춘천24장로회 창립
- *동부연회 장로회 회보창간
- *동부연회 실업인회 창립
- *강원기독교문화 역사연구소창립
- *철락회 창립 10년 운영 회원50명
- *기타 팔팔회, 구구회, 삼우회, 한마음회 창립,

2015년 81세에 '강원기독교 문인회'와 '예향의 샘' 발행은 참으로 의미 있는 창립이었다. 85세에 '철락의 기쁨'을 창립해 자료정리, 수집, 편집, 인쇄, 발송을 도맡아 수고는 있어도 200여명에게 기쁨을 전달했으니 한없이 기쁜 사역이다. 철락의 기쁨은 장수시대를 사는 원로들에게 이목구비(耳目口鼻)를 즐겁게 하며, 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지는 지정의(知情意)로 삶의 용기를 돋우어주는 나의 여생사업이다. 하나님은 '마른 나무' 같은 나에게 무성하게 잎이 달리게 하셨다(에스겔 17장23절)는 말씀을 읽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임을 권유하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 노년의 근심을 털어버리고, 늘 기쁘게, 즐겁게, 새로운 생각을 담은 아름다운 행복을 위해 기도한다.

아직도 내 마음에는 새로운 창립의 꿈이 있다. '강원기독교 역사박물관' 설립과 '강원기독교역사 바로세우기'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신앙 후배들이 이루도록 당부하며 기도한다. 



글 김기태 장로

(프로필)

:등단 수필가

:강원 기독교문인회 창립 회장(현,고문)

:강원 기독교문화.역사연구소 대표

:춘천 중앙감리교회 원로 장로



하나님 덕분에

photo by inho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생활만 했고, 서울의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41년차가 되는 최인혜 집사입니다. 남편은 교육부서에서 20년 근속한 안수집사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 가족의 여름 휴가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였습니다.

남편은 부장교사, 저는 성경학교에 참여한 100명의 아이들의 2박 3일의 밥을 해주었죠. 또한 저희 부부는 성가대로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제가 서울을 떠나 춘천에 정착한 지는 15년, 남편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교회에 다닌 지는 햇수로 9년이 다 돼갑니다. 집이 춘천에서도 외곽 시골에 있어, 매주 먼 길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제 삶에서, 큰 위기가 3년 전부터 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암으로 인해 현재도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내가? 산골의 좋은 공기, 좋은 것만 먹는데 왜 내가?'

나름 자연 먹거리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요리수업을 하며 살았던 제겐 두려움과 함께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가스불에 노출되어 생활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조직검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는 병원의 말에 처음에는 겁이 많이 났습니다. 수술을 하고 1년 동안은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약성이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며 겨우 버티던 중, 급성척추협착으로 인해 화장실도 스스로 못 갈 정도로 24시간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폐는 몸 속 깊은 부위라 갈빗대 두 개를 일부러 골절시켜 수술을 했는데, 이 때부터 체형이 틀어져버려 척추협착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늘 예배 드리러 가던 주일아침이 이제는 컨디션에 따라 갈 수 있을지 모르는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수술 후의 통증과 걷지 못하는 고통까지 겹치며 평소 긍정적이던 제 성격도 나날이 침잠되어 갔습니다.



재작년 12월 중순, 예배 중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증을 참고 부목사님과 집사님과 의논을 하며 자수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 놀라

운 경험은 수업이 결정된 그 이후부터 제 통증이 감쪽같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날 이후 제대로 거동조차 힘들었던 제가, 손수 운전하며 본교 6층 도서관에서 자수수업을 했습니다.

2020년 4월이 되면 수술한 지 3년이 됩니다. 앞으로 2년이 지나야 완치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직 림프종도 있고 가슴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친구라 여기고 있습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성경 말씀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현재 저는 주위에 많은 암환자들에게 자연음식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비록 예전 같진 않지만 농사짓고, 수 놓고, 뜨개질하며 새삼 하나님의 섬세함과 위대함을 일분 일초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는 못하지만 어서 빨리 예배당에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글 최인혜 집사





나는 이렇게 산다

祝福

한옥례 권사

땀방울이 콧등에 송글송글 맺힌 한옥례 권사님을 만났다.

"이쪽으로 편하게 앉아 맛있게 드세요~" 약간 말끝을 울리면서 엄마가 아이를 달래듯 격려하듯 사랑이 묻어난 어투가 다정하다. 목소리에서 이미 섬김의 느낌이 전해온다. 디아코노스! 식탁에서 시중드는 자라는 말 뜻 그대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장애우를 위해 기꺼이 점심 배식을 도와드리며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펴드린다. 모두가 교회에서 먹는 국수나 점심이 맛있다고 느끼는 건 주방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의 정성어린 음식솜씨와, 어르신들과 장애우들의 불편을 배려하여 식탁을 시중들어주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배려 덕분이다. 그 자리가 어떤 지 앉아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일밖에 없어요." 몸을 빨리 놀리며 겸손한 모습으로 국수를 나르는 모습이 참 따뜻하다. 오랫동안 권사님의 도움을 받으며 점심을 먹고 싶다.

세 살 때 어머니를 잃고 울케 손에서 자라다 시피 했다. 울케의 영향으로 열여섯 살 때 교회에 첫발을 디뎠다. 그 후, 한 주도 쉬지 않고 주일성수하면서 믿음 생

활을 하였다.

서울로 시집간 언니에게 가면 만원을 손에 쥐어 주곤 했다. 그 중 천 원은 십일조로 오십 원은 주일 헌금으로 봉헌하며 기쁨을 느꼈다. 결혼한 후부터는 주일헌금을 만원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매주 십만 원씩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헌금을 봉헌하길 기대한다. 한옥례 권사님의 남편은 윤창훈 장로님이다. 타 교회에서 안수 받았지만 교회를 2014년 동부교회로 옮겨오면서 협동으로 봉사하다가 지난해 부부가 함께 장로·권사로 임직했다. 고향 홍천에서 목사님의 소개로 만나 어려운 생활 여건을 뒤로 하고 오직 믿음만 보고 결혼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불도저 기사로 일하는 남편이 벌어들여주는 생활비를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살림을 했다. 남편은 큰 형님이 넘겨 준 보일러 부속사업으로 사업이 불 일 듯 일어나 돈은 넘쳤고 큰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나 춘천으로 이사했다. 집짓는 사업을 시작했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면서 두 분은 주일현금 십일조 외에 감사하여 감사헌금만 지금까지 2억을 헌금하였다. 슬하의 2녀1남도 가정을 꾸려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 두 분은 아들 때문에 동부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으나 아들은 결혼 후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 또한 선교의 일환이라 생각했다.

장로님은 사회에서 하는 일과 연결해 교회의 시설위원장으로, 권사님은 주방 식탁 봉사로 헌신한다. 윤 장로님은 지난 주방 가스파이프가 노후되어 자칫 대형사고가 날뻔 한 것을 미리 전면교체 공사를 하였다. 부부는 일찍이 앞을 내다보고 넓은 야산 옆 물가에 터를 잡아 '3.8선의 봄 펜션'을 지었다. 봄의 철쭉과 여름 시냇

가, 가을의 단풍과 낙엽, 겨울의 흰 눈 등 사계절 각기 다른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한다. 부부는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전교인 수련회와 각 부서들의 요청에 장소를 제공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게 마냥 기쁘고 즐겁다. 장로님은 건설업을 잠시 내려놓고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 계획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한 권사님은 꿈꾼다.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신이 날까.



사업을 잠시 쉬는 동안 원룸 두 채를 운영하며 펜션에서 통나무를 이용한 별통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순수한 토종꿀을 채취해 병환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벌들이 열심히 일해 얻은 꿀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 장로님 부부도 벌처럼 열심히 일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과 계획을 실천한다. 겸손함과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지녔기에 가능한 일이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들이 보기에 아름답을진대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좋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주시길 믿으며 함께 기도한다. 그들 부부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기에. 

글 아름다운이야기 편집부



인생길

오늘 내가 나가는 모임에서 리더가 20년 전으로 돌아가 2000년을 맞던 그 때와 2020년을 맞는 오늘의 느낌을 한마디씩 하란다.

창밖을 본다. 하늘은 흐린 회색빛이다.
그 순간 20년 전이 펼쳐지며 목덜미에서 등으로 한기가 쭉 흘러내린다.

2000년 그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새 천 년이 시작된다는 <밀레니엄>이라는 말만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마술처럼 세상이 새롭게 바뀔 것처럼 흥분했다.

때마침 우리 가족은 IMF로 서울 살림을 접은 이사한 달 만에 밀레니엄을 맞아야 했다.

우리 집은, 눈이나 비가 오면 뿔발로 바뀌는, 잘못 발이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신발이 벗겨지는 데다가 자칫 미끈둥 넘어지면 진흙탕에 뒹군다.

나는 집에 납작 엎드려 있으면 상관없었지만 학교에 다니는 사춘기 막내아들은 신발과 바지가 말 그대로 진창이 되어 등교해야 했다.

오후엔 엄마의 차, 그랜저를 타고 학원에 오가던 1년 전과 달리,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시골길을 버스에서 내려 30분 이상 걸어 집으로 와야 하는 아이.

부모로 인해 용광로에서 새빨강게 달궈진 쇠붙이로 두드려지고 달궈지고 두드려지고 달궈지고... 그렇게 작은 묘목에서 큰 나무로 엄마의 기둥이 된 아들에게 눈물 대신 웃음의 악수를 청한다.

꽃길도 가시밭길도 높은 곳도 낮은 곳도 걸어야 하는 인생길을 잘 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나는 자주 부딪치는 많은 동네 사람들 중에서 50대 중반의 한 미장원 주인을 좋아한다. 밝은 얼굴과 반음 정도 높지만 크지 않은, 반가움이 푹푹 떨어지는 목소리로 건네는 인사가 좋다.

머리를 손보러 갈 때면 연예인 사생활이나 탐색하는 자신이 싫어 책 한 권 가지고 가서 읽거나 차라리 졸거나 하곤.

그러나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서비스 차원에서 풀어놓는 미장원 주인의 이런 저런 얘기가 내 마음에 물감 풀듯하면서 나는 어느새 그녀의 물감에 흠뻑 젖어든다.

시집오면서부터 시어머니와 30여 년간 함께 하기, 암 투병의 남편 그리고 자식들 키우며 미장원 운영하기, 요즈음 갓 시집 온 며느리 적응하기, 홀로 계시는 친가 어머니 밑반찬을 준비해 배낭에 매고 다녀오기 등, 후회 없이 열심히 사는 생활에 손을 꼭 잡아주고 싶다.

또, 내가 1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작지만 귀한 모임에 몇 년 째 빵을 구워 오는 자매 이야길 하고 싶다. 그녀는 불문학을 전공한, 유명여사의 부인, 무엇보다 대입 준비에 돌입한 자녀의 엄마다.

참 바쁜 나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모임 전날 밤 밀가루 반죽하고 잼도 크림도 만들고, 새벽에 빵을 구웠을 게다.

모임의 환호성에 수줍은 듯 환하게 웃는 그녀는, 엄마 가슴을 흔드는 강보 속 예쁜 아기의 해맑은 웃음을 닮았다. 모임을 행복하게 하는 그녀의 웃음도 빵 굽는 마음과 솜씨가 너무 좋아 보여서 나는 딸아이 또래의 그녀가 속으로 참 부럽다.

부끄럽지만 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버드대 교수직을 그만 두고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을 섬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헨리 나우웬>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헨리 나우웬>을 닮은 이가 내 곁에 있다. 한창 앞을 향해 달리던 사람이 10여년 미국생활에 우리말도 서투른 아들의 교육을 접고 치매의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 위해 귀국했다. 연구 대신 농사일과 삼시세끼를 준비하며 사는 그녀 역시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그들 대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공동체의 힘을 빌리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자기들의 삶이나 업적을 포기한 아름다운 바보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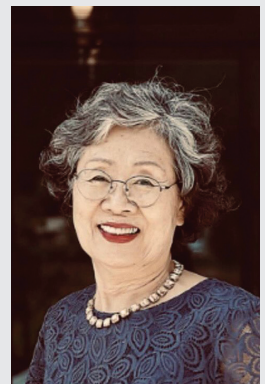
삶에 동의하게 된 건 뒤늦게 철이 들어서일까.

내가 나이가 들어 내 삶에 서서히 남의 손이 필요해 서일까. 지나간 2000년과 지금 2020년. 그리고 앞으로 시간.

자기 인생을 손해 보면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 서로 돌보고 더불어 사는 삶이 아름답다. 정신없이 살아버린 날들. 늦었지만 다시는 제자리걸음이 안 되게 지나간 시간을 야무지게 매듭짓고 꼭 해야 할 일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마디 하나 만드는 오늘이다.

2000년으로부터 20년은 흔적 없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지만 2020년을 시점으로 앞으로 돌아올 어느 날엔가, 나를 안아주며 토닥토닥, 인생을 잘 살아 주었다고 핑큐카드를 전하고 싶다.

흘러가는 인생길에서 소중한 건 무엇일까. 🌱



글 임양숙 권사

라떼 파파 이야기

아이 셋을 키우는 육아 전쟁 속에서
진짜 아빠가 되어가는
한 초보 아빠의 소소한 단상을 적어봤습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녀석, 참 장군감이네.”

“그 녀석 참 잘생겼네. 엄마 아빠가 애 먹이느라 둘다 꺾말랐구나.”

세상에 자식 칭찬하는 말에 기분 나빠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칭찬 대상이 '딸'이라면 조금은 기분이 애매해지겠죠? 이번 글의 주인공은 16개월 홍일점 막내 '진의'입니다. 진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물론 머리가 꽤 자란 지금은 거의 안 듣는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땐,

"아 저.. 사실은 딸입니다 하하하."라고 쑥스럽지만 성별 확인을 꼭 해드렸습니다.

'아들 쌍둥이 둘 뒤에 얻은 금지옥엽인데.. 이런 망언이!!' 라는 불편한 마음이 발로한 거죠.

그... 그런데 이런 상황이 너무 잦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희의 해명을 듣고 나면 대부분 너무 미안해하거나 당황해하시는 모습을 비추셔서, 그 모습에 오히려 저희가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분들은 나를 애정과 관심의 의미로 덕담해주신 건데... 지금은 이런 애



기를 들으면, 아들인 척 배려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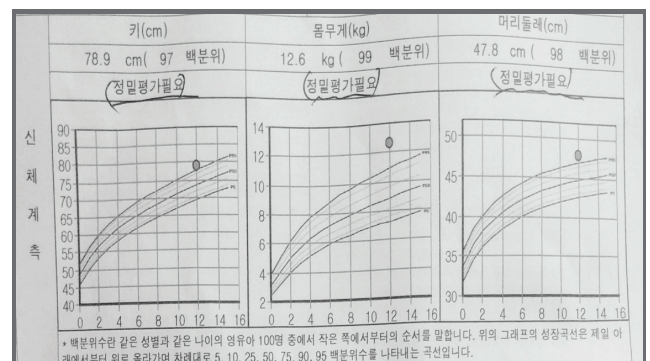
우리가 보기엔 귀여운 딸내미가 확실한데, 왜 사람들은 성별을 헛갈릴까? 문득 나름의 원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우량아 피지컬

둘째, 양육자 아빠의 못난 유아 패션센스

(쌍둥이 오빠들이 작아서 못 입는 옷을 많이 활용함.)

첫째 원인은 '진의'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둘째 이유도 제가 복직을 하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네요.



백분위 97, 99, 98의 위엄, 너무 수치가 높다고
대학병원에서 정밀 평가를 받으라네요.

그런데 사실 진의의 '성별 수난사(受難史)'는 생각해 보면 태아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의를 임신하고, 저희는 쌍둥이 오빠들을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저희의 사정(?)을 아서서인지, 보통 성별이 나오는 주수에도 쉽사리 알려주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남아라면, 저희가 너무 실망할까봐 혹 못된 생각이라도 품을까봐 걱정하셨을까요? 솔직히 당시는 쌍둥이 둘로도 너무 벅찼던 때였습니다. 전혀 예상하거나 의도치 않았던 임신이었고 태중의 아이가 선물보다는 부담으로 느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기왕이면 태중의 아이가 엄마에겐 평생 친구가 돼주고, 아빠에겐 딸 바보로 만들어 줄 '딸'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성별을 여쭙본 저희에게 한참을 초음파로 확인해보며 아직은 반반이라고 조금 더 두고 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아... 일부러 마음을 누그러뜨릴 시간을 주는 건가 보다.'



어딜 봐서 저와 같은 숙녀를 남자로 보냐고요.
자존심 상해, 흥! 찢! 뽕!!

의사선생님의 의도를 몇대로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을 출산 관련 카페에 올려 성별 평가를 받는 등 불안의 시

간을 보냈고, 결국 '딸'이라는 확인을 받던 날 저희 부부에겐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진의는 태중에서부터 성별로 엄마 아빠를 애태우더니, 세상 밖으로 나와서도 다른 이들을 당황시키는 재주를 보이네요. 나날이 어여빠지는 진의를 보며, 성별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던 당시 저희 부부가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걸요. 이 선물이 저희만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진(進), 뜻 의(意)'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인재로 키우고 싶습니다.

진의야,

너를 처음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솔직히 기쁨의 눈물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의 눈물이 컸단다.

그런데 지금 너의 눈을 바라보니,

너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렸고, 어리석었는지 깨닫는단다.

네가 딸이어서 고맙고, 딸이 아니었어도 넌 여전히 엄마아빠에겐 고마운 아이야.

오빠들과 같이 어울리다보면 자주 다칠 수도 있을 거야.

다른 여자 친구들처럼 예쁜 공주 옷과 소꿉 놀잇감이 집에 별로 없고,

투박한 옷들에 공룡 장난감이 가득한 집일 거야.

하지만 너는 세상에서 가장 너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유쾌한 쌍둥이 오빠들을 가졌잖아.

지난 일년 간 우리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자라줘서 기특하고,

앞으로도 우리 가정의 존재감 있는 막내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보자. 사랑해 ♡

(ps, 올해부터 교회 영아부에 나갈거야. 적응 잘 해보자, 파이팅!!) 🍌

글 김지원 집사

“또 가실 수 있을까~”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2박3일



몇 년 전부터 계획한 가족여행 행선지가 바뀌었다. 일본 규슈의 온천여행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일본산 불매운동이 확산돼 계획을 접었다. 나이드은 사람들의 3~4일 해외여행지로 적당한 곳은 일본이라고 생각했으나 우겨서 갈 일도 아니었다. 형님 내외와 시어머니, 우리 부부가 함께 2박3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모처럼 여행길에 더 많은 곳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올 생각에 들떴지만 그 기대는 공항에서부터 무너졌다. 김포공항 2층 식당가에서 커피를 마신 후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가족들이 다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가파른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계셨다. 아차! 싶은 생각에 다시 올라가 함께 내려왔다. "넘어질 거 같아서 못 내려가겠더라. 안 그랬는데." 모처럼 자식들과의 여행길에 한껏 멋을 낸 어머니가 출발지에서부터 약한 모습을 보였다. '여행이 가고 싶어 이제껏 약한 모습을 숨겨왔나?' 87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치 건강을 타고 나서서 2박3일의 국내여행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여행스케줄을 다시 짰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과 시간을 더 오래 갖는 것으로.

얼마만인가, 제주공항을 갔던 기억이 아득했다. 20년 전 쯤, 1박2일 일정의 출장길에서 봤던 제주의 도심은 상전벽해다. 어느 지중해 휴양지처럼 깔끔한 전원주택 단지와 바닷가에 즐비한 카페들. 전날까지 장맛비처럼 겨울비가 내려, 길은 씻은 듯 깨끗했다. 숙소는 함덕해변이 코앞에 있는 리조트였다. 비구름이 남아있었으나 세찬 바람에 하늘도 맑은 기운을 회복했다.



1월 초였어도 제주엔 해풍을 이겨낸 녹색이 계절을 잊게 했다. 수확하지 않은 배추와 무가 벌판에 가득했다. 수확기를 맞은 감귤이 먹음직스럽게 나무에 매달려 있

었다. 낮은 돌담을 두른 과수원에서 뿐 아니라 관공서와 주택의 정원수로 어딜 가나 굴나무가 눈에 띄었다. 굴나무보다 먼나무가 더 인상적이다. 먼나무는 늦봄에 연한 자줏빛이 도는 흰 꽃이 피고 난 후 열매를 맺는다. 야자수와 소철 등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어딜 가나 눈에 띄었다. 같은 언어로 말하나 다른 풍속을 가진 이국처럼 느껴졌다. 몽골, 일본 등 침략의 잔재다.



이튿날, 함덕해변에서 제주도를 종단하는 직선도로를 따라 서귀포시 남원읍의 위미동백나무 군락지로 향했다. 30여분이 지났을까, 가는 길에 '제주 돌문화공원' 입구가 눈에 띄었다. 100만여 평 대지에 건립된 박물관이자 생태공원으로 제주의 형성과정과 토착민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돌문화를 전시해놓았다. 제주 설화 '설문대 할망과 오백장군'이 주제다. 모질고 험난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낸 섬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여자, 바람, 돌이 많아 삼다도. 공원엔 바람이 몰아쳤다. 제주전통초가마를 재현한 돌한마루는 거의 사라져버린 옛 마을을 본뵈었다. 바람의 피해를 줄이려고 밧줄로 초가지붕을 단단히 엮은 모습은 교과서에서나 보던 풍경이었다. 다 보려면 3시간은 족히 걸릴 만치 방대한 자료를 전시했다.

위미동백나무군락지엔 이른 시간에도 관광객이 북적였다. 고목이 된 동백나무에도 주먹 만 한 꽃이 촘촘히 피어 눈을 즐겁게 했다. 2월까지 겨울 관광객을 불러오는 동백꽃이 이상기온에 서둘러 꽃이 지고 있었다. 바닥에 수북하게 떨어진 꽃잎 덕분에 그야말로 '꽃길'을 걸었다. 군락을 이룬 동백나무 사이에 소철이 우람하게

자라 더 이국적이다. 동백나무군락지는 17세 되던 해 이 마을로 시집 온 현병춘(1858~1933) 할머니가 일궈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황무지를 사들인 후 바람을 막기 위해 한라산 동백 씨앗을 따다 뿌려 기름진 땅과 울창한 숲을 이뤘다. 젊은 날의 어머니는 동백꽃처럼 화사했을 것이다. 모진 바람을 견디고 자란 나무처럼 자식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던 어머니의 모습은 없었다. 풍광은 멀리 있었고 무심한 바람만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어머니가 건강을 타고 나셨다 해도 나이는 어쩔 수 없었다. 모든 게 조금씩 느려지셨다. 가고 오는 시간 이틀을 제외하면 제주를 둘러 볼 시간은 하루뿐. 천천히 걷고 오래전에 다녀갔던 곳을 돌아보며 기억을 떠올렸다. 자세히 보아야 더 아름답다던 어느 시인의 말이 생각났다. 쪽빛 바다와 푸름을 잃지 않은 제주의 겨울, 무시로 날아드는 새떼들의 유희를 조망하며 행복했다. 쇠소깍, 정방폭포, 섭지코지 등 서너 곳을 들렀으나 가파른 계단은 내려서지도 못했다. 뒷사람들에게 길을 내주고 수시로 숨을 고르시고 쉬어갔다. 어머니는 이번 여행을 자식들이 만들어준 '효도여행'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에겐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어머니와의 여행이었다. 내년 이맘때, 우리는 보지 못한 제주 서쪽 여행을 계획했다. 불안해하던 자식들과 달리 이번 여행은 어머니께 또 다른 희망을 안겨줬다.

"얘들아, 제주도를 갔으니 내년엔 다낭(베트남)을 가는 게 어떨겠냐!"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목구멍까지 올라 온 말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아이구, 어머니! 제주도도 버거웠어요!' 🌿

글 전경해 집사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주신, 앞으로도 인도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제주도 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울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공공근로를 하시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먹으며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 역시 피폐해져 갔습니다.

무더운 여름, 동네 교회에서 열린 여름성경학교를 나가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 그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에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교회에 가면 친구들도 있고, 달란트시장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기도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가 술을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 아빠는 이혼

을 했고, 아빠는 여전히 저와 동생에게 술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시는 것을 느꼈고, 저의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이 학생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 못 살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빠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동생과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모았던 돈으로 동생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아빠를 보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다 생활비가 다 떨어져 갈 즈음 아빠의 통장을 관리하던 고모에게 용돈 달라는 말을 못하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방학 보충 수업을 들으라면서요. 그 수업을 듣고 싶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아르바이트를 하나고 묻자, 모든 상황이 저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은 사정을 알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들이 한푼 두푼 모아 장학금을 주었고, 학교에서는 매달 생활비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방학 보충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3년 동안 학교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아빠는 언제까지 요양병원에 있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뚜렷하게 아픈 곳은 없지만 다리를 아예 움직일 수 없으니 평생 그 곳에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며 아빠를 살려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은 했지만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모든 병원에서 거절당한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았고, 병원비도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고관절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지금은 목발을 짚으시지만 혼자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병원생활 끝에 술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빠를 살려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춘천교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4년이 흘러 올해 임용시험도 보았습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사실에 감

사하여 울컥한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임용시험 합격의 현실이 저에겐 큰 은혜이자 감동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어떤 것도 우연이었던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저의 기도는 아빠, 엄마, 동생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지금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 가족 중 한명인 저를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니었던 여름성경학교 참석을 시작으로,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짝 묶여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나를 놓치지 않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주신, 앞으로도 인도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글 고희아 (청년 2부)



"이탈리아 무신론자 의사의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롬바르디아주 의사
율리아나 우르반 (Lulian Urban) 38세.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은 24일 오전 기준으로 6만3천여 명의 누적 확진자와 6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 피해가 극심한 국가 중 하나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사 율리안 우르반(Lulian Urban, 38)의 간증이 이탈리아의 기독교 뉴스에 담겨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지고 있다.

3월 23일에 전달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

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 왔고 그 다음은 몇 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려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 (표식)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호홉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의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

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사진출처: gacetacristiana.com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합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

리에게 가져다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율리아나 우르반 (Lulian Urban) 간증 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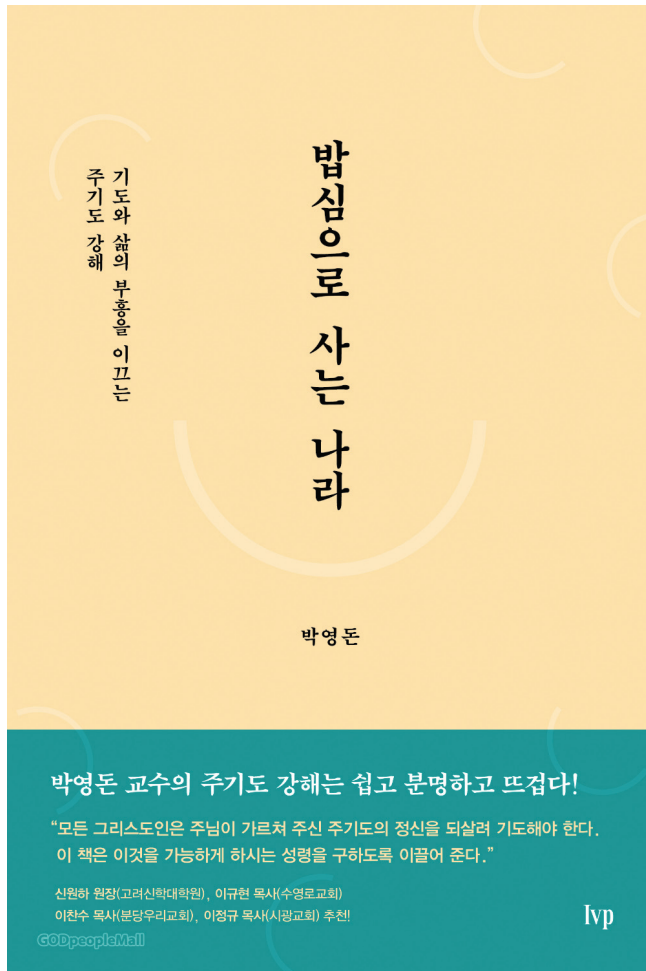
여기까지가 이탈리아 의사의 간증의 글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한 목회자의 발걸음은 교회가 아닌 병원으로 향했다.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두려워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전한 후 목사님은 크게 칭찬하실 주님 품으로 가셨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은 언제나 늘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신다. 🙏

[성경 말씀]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11절)

글 [아시아뉴스통신=유미선 기자]

youmisun.my@gmail.com



박영돈 교수의 주기도 강해는 쉽고 분명하고 뜨겁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정신을 되살려 기도해야 한다. 이 책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을 구하도록 이끌어 준다."

신원하 원장(고려신학대학원),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이정규 목사(시광교회) 추천!
COPpeopleMail

lvp

이 책은 주기도에 담긴 신학을 회중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 쓴 주기도 강해서다. 주기도에 관한 양서들이 많음에도 이 책은 특별한 의미와 필요를 지닌다. 이 책의 저자는 신학교에서 20년 넘게 교의학 교수로서 구원론과 성령론을 가르쳤고 현재 작은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다. 저자의 이러한 특징이 이 책에 잘 담겨 있다. 즉,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기존의 주기도를 다룬 책들에서 좋은 것을 선별하여 정리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필요와 교회의 현실을 살피 설명해 냄으로써, 주기도의 참 뜻과 깊이를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주기도는 여섯 개의 간구로 구성되고 이는 세 개의 당신 청원, 세 개의 우리 청원으로 나뉜다. 저자는 각각의 청원을 세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주기도의 핵심은 “먼저 그의

밥심으로 사는 나라

박영돈 지음
IVP 刊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곧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다. 이는 주기도의 두 기동이 ‘하나님 나라’와 ‘밥’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뜻한다. 주기도에서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밥 문제에 발목이 잡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 나라와 밥은 충돌하는 맞수이자 함께 가는 단짝이다. 내세가 아닌 지금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지금 여기에서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밥에 대한 이야기는, 일상이 강조되는 최근의 흐름과 더불어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삶에서 드러내야 할 믿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찰을 준다.

특별히 각 장 끝에는 ‘함께 드리는 기도’를 수록하여 개인이나 그룹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가 주기도를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 주는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기도의 깊이가 확장되고 열정이 회복되도록 돕는다. 그리하여 주기도의 참 의미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기도하는 삶,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되고, 갈 길을 잃어 버린 한국 교회는 회복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다. 



숨바꼭질

목은 먼지를 털어내고 아이들을 맞았다. 개학과 입학이 미뤄져 때 아닌 긴 봄방학을 보내야 하는 손주들이 왔다. 수원에서 온 조카 손주들까지 합세해 열흘도 넘게 유치원처럼 복작거렸다. 숨바꼭질, 공기놀이, 보물찾기, 비눗방울 놀이 ... 기억 저편의 온갖 놀이를 끄집어내는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학습지를 챙겨 보낸 엄마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아이들은 놀이에 열중했다. 개구지게 놀다보니 저녁나절엔 모두 흠강아지가 됐다.

찾아낼 때마다 “찾았다~!” 소리치는 아이들이 예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숨바꼭질을 했다. 천방지축 세 살 박이가 언니들을 따라다니며 숨은 곳을 들키게 했다. 아이들은 저를 찾아내지 못할까 겁이 나는가 보다. 뽕처럼 엉덩이는 다 내놓고 얼굴만 숨긴 아이들이 키득거린다. 뻘한 장소에 숨은 아이들을 짐짓 모르는 채 “어디 숨었지? 여긴가? 저긴가?” 지나치면 “요기 있지롱. 킁킁” 하며 참새처럼 웃는다. 꼬맹이들이 찾아낼 수 있는 곳에 숨어주는 게 놀이를 즐겁게 유지하는 비결. 나도 저희들처럼 뻘한 장소에 숨어 찾아내기를 기다렸다. 개집 뒤에도 숨고 이파리가 돋아나기 시작한 나무 뒤에도 숨었다.

‘코로나19’로 기억할 2020년의 봄날이 아이들에겐 놀이로 행복했던 유년의 뜰로 남을 것이다. 아이들이 숨었던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햇살처럼 부서지던 웃음소리가 기억날 것 같다. 거울을 보니 봄별에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다.

글 전경해 집사

디아코니아 단신

34기 동부 아기학교 종강예배

12월 3일 화요일, 올해 하반기 34기를 맞는 동부 아기학교 종강예배를 가졌습니다. 24명의 아기들과 보호자가 함께한 이 자리에서 동부아기학교장이기도 한 담임목사님은 눅2:52를 성경 본문으로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우리들'의 제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구간의 153 모금 및 모금액 전달식

매년 성탄을 맞이하여 강원지역 어린이 및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후원 행사인 마구간의 153이 진행되었습니다.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모금한 성금은 강원대 어린이병동과 퇴계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중증 장애인시설인 가평의 루디아의 집 장애인들, 강원노인병원의 노인 환우들에게, 더불어 총회 농어촌선교부 산하 어려운 농촌 교회를 위하여 전액, 나누어 전달하였습니다.



디아코니아 학교 1단계 17기 수료식

지난 11월 3일에 시작하여 12월 20일로 모든 교육을 마친 23명의 수료자들이 21일 새벽기도회 가운데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수료식은 고명선 집사가 대표로 수료 소감 발표 및 수료증서 교부 시간으로 섬겼으며, 수료생 모두가 '가서 제자 삼으라'제하의 특송을 드렸습니다.



2020 디아코니아 해외탐방을 위한 바자회

1월 12일 주일, 디아코니아 해외탐방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주차장 입구 및 1층 식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도토리묵, 식혜, 가래떡, 조림간장, 절편, 떡볶이, 부침, 팔죽, 순대 등 여러 품목의 즉석, 포장 먹거리, 제품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6층 나눔카페 수익금 일부 전달

1월 19일 주일, 우리교회 6층 나눔카페 수익금 일부인 100만원을 뉴질랜드로 선교를 떠나는 '오시혁, 정지연 후원선교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나눔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섬김이 필요한 주위 이웃에게 전액 사용됩니다.



2020 교회 법인 산하 복지시설 전 직원 세미나

2월 7일 금요일, 우리교회 법인인 사) 동부디아코니아 산하 복지시설 전 직원 세미나가 교회 2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법인 대표이사)을 비롯, 법인 이사 및 3개 기관 직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수직원 표창 및 각 복지시설 프리젠테이션,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제하로 담임목사님의 주제강의가 있었습니다.



2020 디아코니아 장년부 해외선교탐방 in 말레이시아

2월 16일 주일, 디아코니아 장년부 해외선교팀은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SIB 교단 산하 기관을 6일간 방문, 탐방하였습니다. BTS(보르네오 복음 교단 신학교)에 방문하여 지역 어린이 놀이학교와 신학교 시설 개보수 및 도색 봉사를 진행하였으며, 필리핀 난민 어린이학교와 어렵게 살고 있는 LIKAS교회 교인 방문, 그리고 SIB교단 총회 본부 방문 및 LIKAS교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선교후원품 및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교육부 단신

교육1부 성탄축하발표회

2019. 12. 20. (주일) 교육1부 성탄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교회 80년 역사를 성탄발표회에 접목하여 더욱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며 각 부서마다 다양한 발표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졸업예배

2019년 12월 29일(주일) 1년간 예배에 출석한 교회학교 학생들의 졸업예배를 드렸습니다. 2019년 수료 및 졸업하는 아이들은 영아부 32명, 유치부 22명, 유년부 23명, 초등부 28명, 소년부 20명, 중등부 15명, 고등부 16명 등 총 156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졸업과 수료를 하였습니다. 교육부 목회자와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반기 성경통독수련회

2020. 01. 17.(금)새해를 맞아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실시한 2020년도 상반기 성경통독수련회가 1월 6일(월)부터 1월 17일(금) 2주간의 은혜로운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서를 통독하며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부소식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기를 청년1부 겨울수련회

2020년 1월 29일(수)~2월 1일(토)까지 3박 4일 동안 청년1부는 "YES, JESUS"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기간동안 우리교회 오시혁-정지연 선교사님이 어떻게 의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들을 수 있었고, 박도준 목사님의 영화설교로 '천문'-하늘아래에서 같은 꿈을 꾸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비전을 찾는 시간이 있었으며, 특히 청년1부 지체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부 단신

성탄 트리 점등식

성탄 점등식이 12월 4일 수요일교회 후에 있었습니다. 춘천 땅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주관 금요일의 은혜로운 밤

2019. 12.6(금) 청년부 주관 금요일의 은혜로운 밤이 '꿈을 꾸다'라는 주제로 있었습니다.

청년들 각 개인마다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신앙고백의 영상은 함께 한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우리교회 청년들이 아니 한국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및 칸타타

2019년 12.25(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 성탄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텃빈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으며 시온 및 연합찬양대(초등부, 임마누엘, 여호수아, 갈렙, 고등부 워십팀)에서 '주 우리와 함께'라는 주제로 온 세대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보수 봉사자 격려의 시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귀하게 섬기시는 무보수 봉사자 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휘와 반주, 오케스트라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목회자, 직원 수련회

지난 2월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2박 3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부산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감천마을 등 부산 문화중심지역 곳곳을 방문하였으며, 특별히 동래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기독교선교 박물관을 찾아가서, 한국교회 선교 역사와 더불어 세계 선교의 줄기를 한 눈에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송구영신예배

2019년을 마무리하며, 2020년의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송구영신예배,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해로 출발하였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셨으며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20년도 표처럼 행복한 새벽, 신나는 영혼구원 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신년 하례회

020. 01. 11.(토) 교회의 당회부서 및 제직부서, 법인 기관의 책임자들이 모여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올리는 신년 하례회를 가졌습니다.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2020년 새해를 맞아, 예배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신년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짧은 새벽기도회 기간이지만, 담임목사님의 영적이고도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춘천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